

01 교회소식

또 다른 시작 ...

생명이 움트는 봄, '2015 각 부문 우수상 시상식'과 '연합성결신학교 및 MIS 졸업식'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 행사 소식.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라

영적인 빛이 임하면 영적인 어둠을 물리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받을 수 있다.

03 기획특집

“전도, 이렇게 해 보세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본다.

04 간증

말씀과 권능을 통해 주님께 나온다

뇌종양을 치료받고 가족이 복음화된 콜롬비아 마르셀라 성도와 성결의 말씀에 영혼들이 모여든다는 권순희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727호 2016년 2월 28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2015 각 부문 우수상 시상식’ 총성된 일꾼들 상 받아

지난 2월 21일(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 안에서 충성되이 감당한 성도들을 위한 ‘2015 각 부문 우수상 시상식’이 있었다.

수상자는 총 44명으로, 교회 부흥의 중심인 교구의 우수 지역장·조장·구역장과 나이별로 구성된 선교회의 우수 선교회 조장·기관장, 이 외에 위원회와 봉사대, 상근부서 등에서 충성 봉사한 일꾼들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0여 년간 변함없이 주일 점심 국수 봉사를 해 온 만민 봉사대 노희환 집사는 “교회에 오기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때 친구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담배도 단번에 끊고 몸이 빠르게 회복되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일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교회에 와서 국수를 준비할 때면 마음이 참 기쁩니다. 건강을 주셔서 하늘에 상급 쌓고 성도님들도 행복하게 해 드리잖아요.”라고 말했다.

번역국 시조 준조 권사는 “당회장님의 저서와 만민찬양을 번역하면서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상까지 주시니 민망하네요. 더욱 영적인 충성으로 일본의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일본 시마네 현 마쓰에 시에 소재한 시마네 국립대학 영문학 교수였던 시조 권사는 생명의 말씀에 갈급해하던 중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와 설교 테이프를 통해 은혜받고,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20년 된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받았다. 그 뒤 문서선교를 위해 헌신하고자 교회 상근 직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 된 지체로서 각 분야에서 기쁨과 감사로 총성해 온 2015년 부문별 우수상 수상자는 교구에서 지역장 4명, 조장 3명, 구역장 4명을 비롯하여 선교회에서 조장 1명, 기관장 4명, 위원회에서 6명, 봉사대에서 4명, 교회직원 13명, 봉사자 5명 총 44명이다.

섬기고 있다. 한편, 영화배우이며 한국법무부 갱생보호협회 홍보대사인 조춘 장로는 주일 아침마다 교회 입구에서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며 택시 기사들에게는 간식과 함께 만민뉴스를 전하고 있다.

조 장로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목뼈에 열두 개의 나사를 박는 신경확장수술을 한 뒤로 목이 잘 돌아가지 않았지요. 그러나 당회장님을 만나 기도를

받았더니 성령의 불이 임해 모든 후유증이 사라졌습니다. 그 뒤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이제는 구원의 기쁨과 천국 소망이 있으니 제 삶이 청춘 같습니다.”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44명의 수상자 외에도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된 만민의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여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단신

제24회 연합성결신학교 및 제9회 MIS(만민국제신학교) 졸업식



제24회 연합성결신학교 및 제9회 MIS(만민국제신학교) 졸업식이 지난 2월 18일(목), 오전 11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MIS총장 정구영 박사(전, 서울여대 총장)는 ‘영광’(합 2:14)이라는 말씀을 통해 졸업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영육 간에 능력을 탁월하게 배양하여 어디를 가든지 덕을 끼치는 선의 지혜가 충만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사장 상에는 김창민 교육전도사, 학장 상에는 김진아 교육전도사가 수상했다.

봄방학 맛이 비전특강 등 아동주일학교 행사

지난 2월 21일(일) 오후 1시 10분, ‘학부모 초청 아동 성령 충만기도회’가 우리 교회 4, 5성전에서 아동주일학교 교장 김현진 전도사의 인도로 있었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어린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월 22일(월)과 23일(화)에는 ‘2016 봄방학 맛이 비전특강’이 열려 요한계시록 강의 청취 및 통독, 즐거운 요리, 창조과학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현진 교장은 “본격적

인 제3도약기를 맞아 만민의 꿈나무인 아동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축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올바른 꿈을 갖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주의 종, 교사, 부장님들이 이를 위해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봄방학 맛이 지성전 초청 특별 토요일찬양예배’가 27일(토) 오후 3시, 4성전에서 열려 각 지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도 참석하여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5)

하나님은 빛이시라

활한 우주 공간을 분리하시고 영계의 정점에서 스스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빛과 소리로 계셨던 근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그대로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빛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과 선, 진리가 담겨 있으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죄사함을 받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을 만나려면 빛 가운데 행해야

성경에는 사랑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등 ‘하라’는 말씀들과 안식일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 등 ‘지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한 미워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등 ‘하지 말라’는 말씀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등 ‘버리라’는 말씀들이 있지요. 이러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고 ‘지키라’ 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며,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버리라’ 하신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은 어둠에 거한다는 증거입니다. 빛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어둠의 세계는 원수 마귀 사단이 주관합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므로 어둠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신속히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말씀한 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둠에 있으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고 한다면 이는 거짓말입니다 (요일 1:6).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 있으려면 반드시 죄를 버리고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귀어란 일

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편에서 누구를 안다고 해서 그와 사귀어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 믿고 대화할 수 있는 친밀한 사이를 말합니다. 사귀어도 얼굴만 아는 정도와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있고, 나아가 깊은 비밀까지 나누는 친밀한 관계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어 마땅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귀어 되려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편에서도 나를 알고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사귀어 있다면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 병들거나 연약하지 않고 가난할 리 없으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과 사귀어 깊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나 전쟁에서 싸울 때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일일이 여쭙았기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이런 사귀어 가진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3. 빛 가운데 행할 때 임하는 축복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오직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지만 어둠을 쫓는 사람들은 원수 마귀에 속하므로 빛을 설명해 주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빛을 싫어하고 대적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갔지요.

그러나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진리의 빛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좇아 날마다 성령으로 영을 낚아감으로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설령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모자란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빛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음으로 범사에 행통한 길로 인도받아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얽히고설킨 문제라 해도 성령이 친히 갈 길을 알려 주시니 막힐 것이 없고, 혹 장애물이 있더라도 능

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을 이루고 빛 가운데 행하면 하늘로부터 지혜와 명철이 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늘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샘솟지요. 누구와도 다투거나 불복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가 넘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요삼 1:2)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권능도 받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행할 때 임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속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악의 모양을 버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자라나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성장하여 아버지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세한 악의 모양까지도 발견하여 버려야 합니다. 윗사람이 되고 권세가 생길수록 더 마음을 낮추며 소자의 말도 무시하지 않고 겸손히 귀 기울여야 하지요.

설령, 악을 행하는 상대에게도 감정을 품지 않고 덕과 사랑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더구나 상대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의로 화평을 깨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름에 있어서도 스스로 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며 그들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더 기뻐해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만사행통한 축복은 물론, 권능까지 받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지요. 참 자녀가 되어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캄한 방 안에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영적인 빛이 임하면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어둠이 있을 때에는 가족, 일터, 사업터에 문제가 생기고 영혼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없지만, 영적인 빛이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사라지며 마음의 소원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1. 영적인 빛이란?

요한일서 1장 5절에 “...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곧 영적인 빛은 하나님 자체요, 진리와 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어떤 형상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빛과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진 상태에서 홀로 광활한 우주를 품고 계셨습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 온 우주를 감싸고 그 빛으로부터 청아하고 우렁찬 소리가 울려 나왔지요.

이처럼 빛과 소리로 계셨던 근본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인간 경작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광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예배(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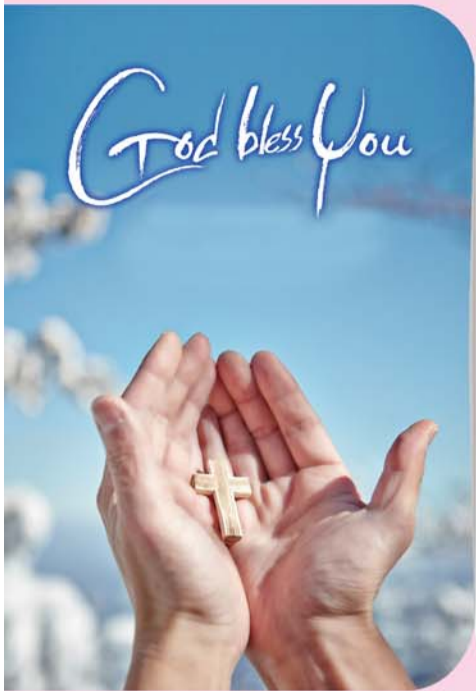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효과적인 전도 방법

전도(傳道)란, 말 그대로 도(道) 곧 길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의 도가 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한다.

먼저는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으므로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도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왜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십자가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과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도 전해야 한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 첫째, 전도자가 먼저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한다

전도대상자를 위해 불같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전도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켜 마음 문을 열도록 역사해 주신다. 전도 대상자를 교회에 등록시키기까지 원수 마귀 사단의 방해로 받지 않도록 무엇보다 먼저 전도할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주변의 방해 세력을 물리쳐 주어야 한다.

◆ 둘째, 전도 대상자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복음의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리 전해 주어도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들에게 억지로나 비굴하게 전도할 것이 아니라 기회를 기다리며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처음 전도 대상자를 만나서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주입식으로 전도할 것이 아니라 상대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는 식으로 질문하면 상대의 반응을 이끌어 내기가 쉽다.

이 외에 교회의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게 한다든지, 설교 테이프나 CD,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책자를 권하거나 꾸준히 교회 신문을 전하여 먼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한 뒤, 상대가 평안한 때에 대화를 유도하여 거부감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도록 이끌어 가는 방법도 있다.

◆ 셋째,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과 관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

전도자가 사랑의 마음이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없다면 전도 대상자를 구원과 영생으로 이끌 수 없다.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에게 게라도 변함없이 관심을 가지고 진실된 사랑을 실천하며 희생하고 헌신할 때 결국에는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게 된다(약 2:15~16).

◆ 넷째, 자신과 성도들의 간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문제 해결받은 사례들을 간증해 줄 때 관심을 보이고 귀를 기울이게 된다. 더욱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사와 표적, 희한한 능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면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간증이다. 사실을 입증시키기가 쉬워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다섯째, 하나님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소문을 많이 내야 한다

노방 전도를 통해 전해진 전도지나 간증 책자로 교회에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전한 것이 때가 되어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널리 알리고 소문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 안에서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이다. 전도 왕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교회 자랑과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 목사님이 좋다는 말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즉 교회에서 일어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 복음을 전하는 권세 있는 설교 말씀 등을 널리 전파함으로 상대가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도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 여섯째, 상대의 관심사를 영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

전도의 좋은 방법은 상대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며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 주어 주님께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질병에서 놓임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면서 치료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업터에 문제가 있다면 사람의 지혜와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등 각 사람에게 당면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TIP 만일 전도받아 신앙생활이 처음이라면?

- * 주보에 나오는 성구를 매일 외우고 성경을 1장씩 읽는다.
- * 매주 새신자교육을 통해 신앙인의 기본을 배울 수 있다.
- * 매달 열리는 성령충만기도회에 참석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 *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 지옥 등의 신앙서적과 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 등을 통해 생명의 말씀들을 양식삼을 수 있다.
- * 수요일예배, 금요일야예배, 화요일양예배(젊은이) 등 각종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다.

이재택 목사의 생명의 말씀	GCN TV설교	예능 프로그램	해외성회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6. 2.28~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곱교회 10-14 ■ 선 ■ 성경적 결혼관 2 ■ 하나님의 뜻 ■ 십계명 1-2 ■ 헛되고 헛되니 1-3 ■ 천국 26-30 ■ 믿음의 분량 24-27 ■ 마음발을 개간하자 4-7 ■ 요한계시록 강해 32-39 ■ 신앙생활 쉽게하기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의 힘 (이수진 목사) ■ 지혜 4 (이미영 목사) ■ 신뢰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38 (이희선 목사) ■ 용기 강해 16 (신동초 목사) ■ 여호와의 누구관대 (정구영 목사) ■ 위로부터 난 지혜 3 (김수정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31 ■ 회상 [시즌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10 ■ 일곱달콤 어여쁜 율동 43 ■ 내 마음의 찬양 18 ■ 창조와 과학 8 ■ English 5 ■ 모두 드려요 38 ■ 뷰티풀 라이프 5 ■ 즐거운 요리 19 ■ 흥겨운 소리 5 ■ 옛날 옛적에 13 ■ 플로리스트 4 	<p style="text-align: center;">GCN HD 채널 kt alleh tv 882번</p>	

“뇌종양을 치료받아 가족 복음화를 이루었어요”

2013년 2월 어느 날, 심한 두통으로 고통받던 저는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족도 알아보지 못한 채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가 하면, 몸에 마비가 와서 잘 걷지도 못하고 음식도 스스로 먹지 못했지요.

남편은 물론 가족 모두 너무 놀라 저를 병원에 데려갔고, MRI 촬영 결과 기억장치와 몸의 움직임을 주관하는 왼쪽 뇌에 종양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친정어머니는 엔라씨 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으시고 콜롬비아만민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권능의 역사들을 대하며 믿음이 되었던 터라 제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평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상의하여 하나님께 치료받고자 병원은 물론, 다른 물리적인 치료 방법을 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하지요.

일주일 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제게 임하여 부모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가서 장정연 담임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질병을 치료하려면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사소한 일 하나까지라도 회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교회에 가려면 2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온전한 주일성수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힘썼지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화상을 통해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고 때를 쫓아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



가족과 함께한 마르셀라 그라나다 성도 (29세, 콜롬비아만민교회, 오른쪽 두번째)

(행 19:11~12)으로 담임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서 차츰 기억력이 회복되고 몸의 마비도 호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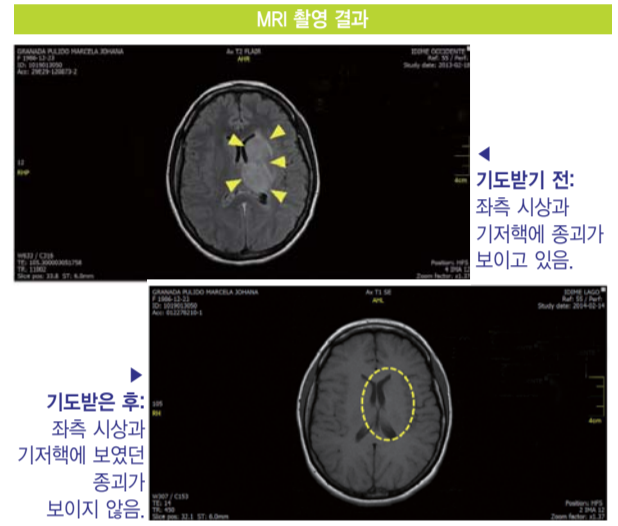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하나 회복되어가던 2014년 2월, 저는 그날도 담임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온몸이 뜨겁고 땀이 흐르더니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지요. 온전히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종양이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은 매우 의아해하며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제게 물었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는데요.”라고 말했지요. 남편과 딸, 온 가족은 매우 기뻐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다음 달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근처로 이사해 다니엘철야 기도회에도 매일 참석합니다. 예전에는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이 모여 살 수 없었는데 이제는 축복을 받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병 당시 대학에 다니던 저는 기억력 상실로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복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요. 교회에서는 기관장과 안내위원으로 봉사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뇌종양이라는 질척 같은 어둠 속에서 건져 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확신 가운데 성결의 말씀을 소개할 뿐인데 17명이 전도되었어요”



권순희 집사 (56세, 3세대 23교구)

세계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지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는 오랜 의문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명쾌한 답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경작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을 알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전에는 하나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지 못한 채,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느끼며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법칙을 확실히 가르쳐 주시니 이제 아파도 걱정이 없습니다. 발목의 화상도 무안단물(출 15:25)을 뿌린 뒤 통증 없이 신속히 아물었고, 오른쪽 손목의 관절액이 나와 생긴 혹이 어느 틈에 사라지는 체험도 하였지요.

더욱이 하나님 권능으로 항상 지켜 주셔서 큰 확신 가운데 성결의 복음을 전하니 벌써 7가정의 17명이 만민의 양 떼가 되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한 지 1년 4개월이 되었는데 하루하루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20여 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영의

저는 전도를 그리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령께 지혜를 구하며 사람들이 제게 연락해 오기를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설교 말씀과 당회장님의 신앙서적, 후보, 만민뉴스 등을 이용하여 소개했을 뿐인데 진리를 찾는 영혼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이지요.

한 분은 인터넷으로 당회장님의 설교를 듣고 평생 간구하던 성결의 말씀과 참 목자를 만났으며 날마다 천국을 느끼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때론 곤고함이 찾아온 하였는데, 당회장님의 신앙서적과 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에 요약된 설교 내용을 읽고 난 뒤 성령의 이끌림 속에 가르쳐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지금은 부산만민교회에 등록하여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던 영혼들이 당회장님 설교를 통해 영적인 해갈을 맛보며 자력으로 전도되어 변화와 생명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인지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갈수록 대역 죄인이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긍휼의 마음이 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열심히 전하며 영혼들을 위한 기도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들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톨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산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2층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